

PC 이용 현장을 가다

창미문화사

출판도 컴퓨터시대

PC 사식기로 읽고 작성에서 인쇄까지

원고 작성에서부터 편집, 인쇄까지 전과정을 책상위에서 PC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데스크탑 Desktop) 출판 시대가 개막되었다. 아직 국내에서 편집까지는 불가능하지만 국산 전산사식기가 개발됨에 따라 일제 일색이던 전산사식기 시장에 새로운 판도를 형성하고 있다. 국산 전산 사식기를 제1호로 설치한 창미문화사. 이를 통해 컴퓨터가 피워낸 출판문화의 꽃을 탐미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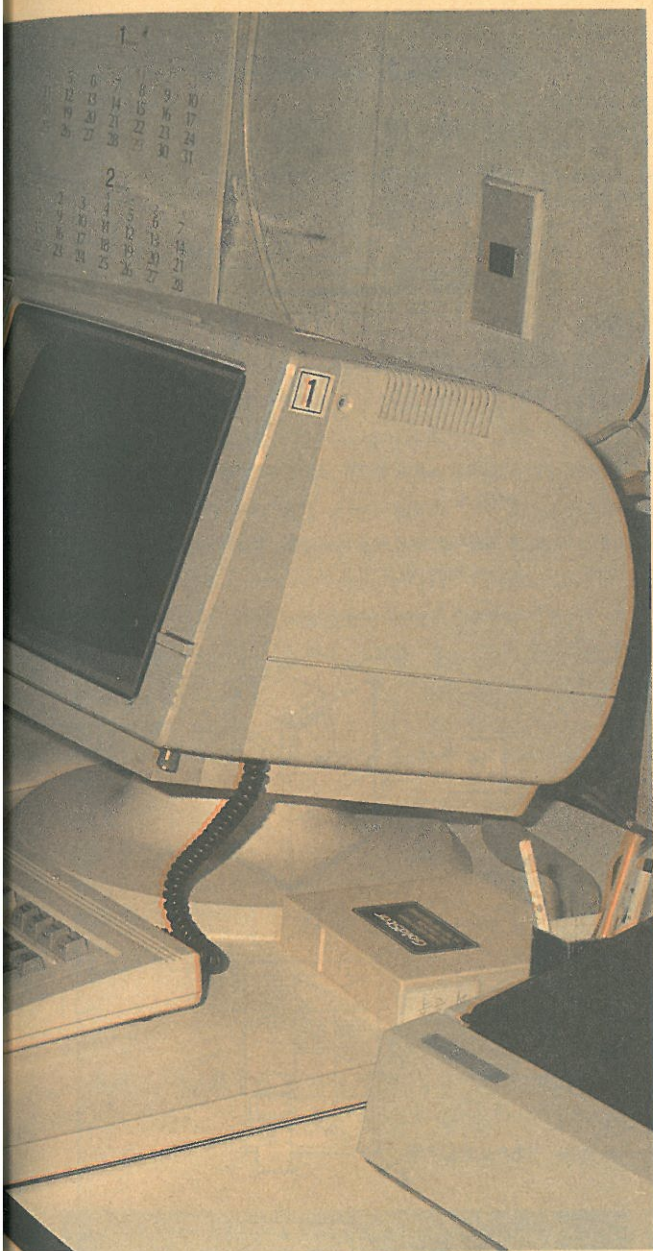
취재 : 강 미옥 기자, 사진 : 김 상엽 기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까지 이슬내린 아침과 바람눈은 하늘과 지저귀는 새의 날개짓이 있었듯이 하나의 책이 탄생되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땀과 기술이 결집되어 있다. 그러기에 출판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이해되어지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출판문화를 소중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출판업계는 일제 사식기에 의해 잠식되어 왔다. 그러던 중, 신문 제작 자동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한국일보사에서 1979년 한글 전산사식기 개발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오늘날 그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책 한편의 내용이 디스켓 한장에

창 미문화사는 83년에 문을 연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식 전문업체. 총 인원이 16명이기에 크지 않고, 1명만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기에 작지 않다.

“200자 원고지 2천매 정도가 디스켓 1장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기존 수동 사식기의 경우 하루(8시간)에 100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데 비해 PC 사식기로는 거의 3배까지 가능합니다. 한글의 경우는 그렇다하고 영문과 한자의 경우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이지요.” 창미문화사 전산화의 주역인 박 충상 과장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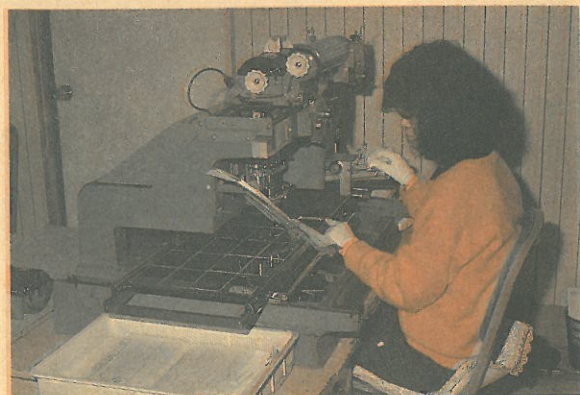


리판에 뺄뺄히 적혀있는 글자 중에서 필요한 글자를 일일이 찾아 찍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오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PC 사식기의 경우 키보드로 입력되므로 속도가 빠르지요.” 최 명운 사장의 설명이다. 특히 영문과 한자의 경우엔 더욱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PC에서는 한글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해당 글자를 찾아주므로 그 편리함이란 비교가 안될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글자 간격도 컴퓨터가 알아서 조절해주므로 한글과 영어, 또는 한글과 한자가 연결되었을때의 위치 간격이 매끄럽다. 또한 행과 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서체와 굵기의 조정도 간편해 언제든지 원하는대로 편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형을 바꿀때나 수정본 발행시에도 편리하다. 그 외에도 책 한권에 소요된 대지와 필름이 디스켓 1장에 수록되므로 보관도 편리하다. 더우기 재판에 드는 비용도 감소되므로 그야말로 출판문화는 뚜렷한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원고 작성에서 책이 나오기까지

편 집 작업은 원고의 작성에서부터 시작한다. PC의 워드프로세서 기능을 이용하여 원고를 작성한다.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진이나 도표를 정리한다. 그다음 페이지 단위로 레이아웃(lay out)을 한다. 사진이나 도표의 위치를 결정하고, 확대나 축소도 하는데 페이지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적당하게 맞춰야 하므로 작업이 꽤 어렵다.

그리고 나면 전산사식기에 의한 사진식자로 대지를 만든다. 대지란 인쇄될 원고의 내용이 담긴 인화지를 종이 판에 그대로 붙인 것이다. 대지작업이 끝나면 레이아웃이 지정한대로 되었는데, 사식에 잘못됨이 없는가, 문장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수정작업이 끝나면 인쇄소로 넘긴다. 아직 국내에서는 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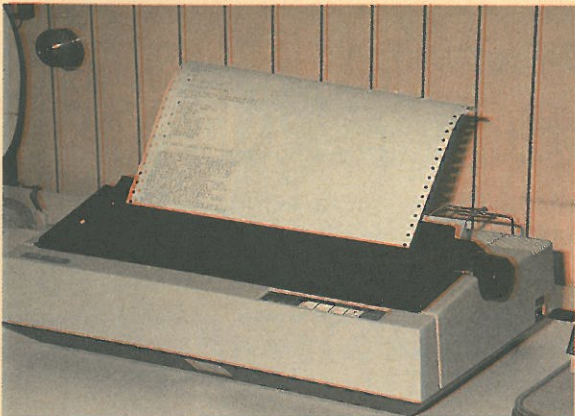


〈사진1〉 종래의 수동식 사식기는 유리판위에 뺄뺄히 적힌 글자중에서 필요한 글자를 일일이 찾아 찍어야 했다.

창미문화사가 PC 사식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86년 9월. 그동안 실험기간을 거쳐 12월에 정상가동을 시작하였다. 사용중인 시스템은 한국일보사에서 개발한 국산 PC 사식기. 원고 입력 및 교정, 편집을 할 수 있는 「HCG-8305」 2대와 교정용 프린터 「HCG-P180」 1대가 설치되어 있다.

출판문화에 코페르니쿠스적 전기를 맞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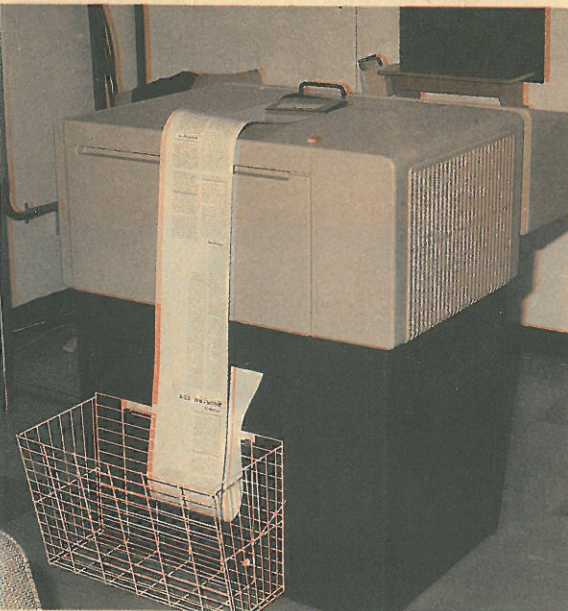
“PC 사식기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동식 사식기는 유



〈사진2〉 교정용 프린터 「HCG-P180」. PC에 입력된 내용을 즉시 출력하여 주어 교정을 볼 수 있게 한다.



〈사진3〉 영국 Monotype사가 제작한 출력기 「Lasercomp 70i」. 원고 내용이 수록된 디스켓을 넣으면 필름상태로 자동출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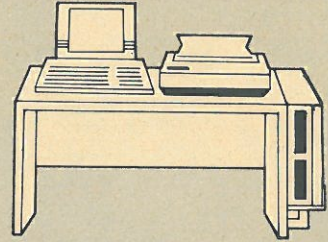


〈사진4〉 출력기에서 출력된 필름을 현상하는 현상기. 네가도 가능. 이것을 대지에 붙여 인쇄소로 가게 된다.

〈컴퓨터학습이 만들어지기까지〉

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 원고 작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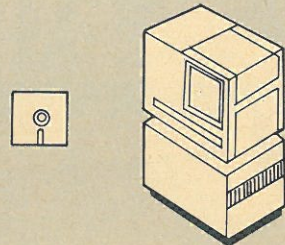
② PC 사식기를 통해 원고가 입력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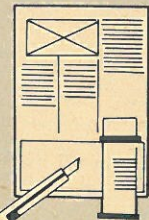
③ 입력된 내용의 원고가 교정용 프린터를 통해 출력된다. ↓

④ 교정지를 통해 원고 내용 교정, 삽입과 삭제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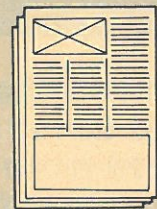
⑤ 수록된 디스켓의 내용을 출력기를 통해 출력 ↓



⑥ 출력된 필름을 현상기로 현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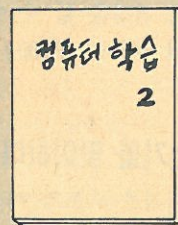
⑦ 출력된 인쇄지로 편집 작업



⑧ 편집이 완성된 대지를 인쇄소로 보낸다.

↓

⑨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이 완성된다.



“다양한 서체 입력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죠.”



창민문화사 대표 최 명운

국내 사식업계는 대부분 영세한 편으로 1대~20대까지 천차만별이지요. 우리가 PC 사식기를 도입하게 된 것은 1986년 9월에 열린 국제인쇄기전 KIPES '86을 보고나서입니다. 마침 전산사식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때에 저가격의 국산제품이 나왔으니깐요. 여러가지 기계를 검토한 후

에 HCG-8305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사식기는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나 교정지를 미리 확인할 수 없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이에 비해 PC 사식기는 조작 편집 명령어 13개만 알고 있으면 모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식 오퍼레이터는 1년여 수습기간이 필요

하지만 전산 사식 오퍼레이터는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PC 사식기는 전산사식 뿐 아니라 일반 PC의 기능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다양한 서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력기를 국산화시키는 것이 커다란 과제이지요.

편집 기능까지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일보사에서 개발중이므로 1년 후면 완전한 자동출판시대가 열릴 것이다.

DP의 세계적인 동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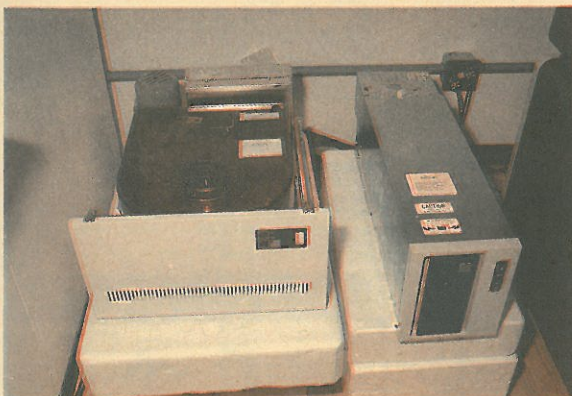
컴퓨터를 이용한 출판시스템(CAP : Computer Aided Publishing) 중에서 PC를 사용한 소규모 업체나 개인 수준의 CAP시스템을 미국에서는 DP(Desktop Publishing)라 칭한다. 즉, 책상에 앉아서 원고 작성에서 인쇄까지 전 과정을 컴퓨터로 관리한다는 뜻이다. 출판사나 인쇄소에

가서 해야될 작업을 PC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PC에서 가능한 DP S/W가 3종류 나와있는데 모두 애플사의 매킨토쉬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 세가지는 「Page Maker(Apple사)」, 「Ready Set Go(맨하탄 그래픽사)」, 「Mac Publisher(보스턴 소프트웨어사)」 등이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①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문자원고 ② 스캐너 등에서 디지털화한 복잡한 사진이나 도표 ③ 그 외 데이터를 화면상에서 레이아웃하여 레이저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게 한다.

국내 전산 사식기의 현황

국내 전산사식기는 그동안 일체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던 중 84년 한국일보사가 전산사식기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영국의 Monotype사의 출력기를 사용한 레이저 방식의 기기였다. 85년에는 정주기기가 fiber optic 방식을 사용한 전산사식기를 개발하였고, 이 외 STI와 삼화양행 등에서 PC를 이용한 전산사식시스템을 선보였다.

현재 국산 전산사식시스템의 경우 입력기만이 국산화되었을 뿐으로 출력기는 모두 외국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 국내기술이 미진할 뿐더러 고가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업체들은 입력기와 교정용 프린터만을 갖추고, 출력은 판매회사에 가서 하고 있다. 한국일보사의 경우엔 한국컴퓨터그래피라는 자회사를 설립, 보급 관리를 맡기고 있다.



〈사진5〉 한글 6서체와 영문 41체가 입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왼쪽이 일본 후지쯔의 「ME-94N」이고, 오른쪽은 미국 CDC 「FSD-340」이다.